

LUX HUMANITAS

VOL.16. 2013

KYUNG HEE UNIVERSITY NEWSLETTER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SPECIAL REPORT

- 02 '학술 경희'의 미래 건설
- 03 'Space 21', 2016년 완공 목표
- 05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추진 경과

FOCUS

- 06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 07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 선구자 20인' 선정
- 08 BK21 플러스 '창의인재 양성사업' 20개 선정
- 10 세계적 과학지널, 경희의 연구 성과 소개
- 12 경희의 인문·사회계열 3개 학과 전국 '최상위'
- 14 조인원 총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정신" 강조
- 15 2013년 정년연장교원 5명
- 16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6년 연속 선정
- 17 "경희대, 인문학 강조하는 대학"

TODAY

- 18 귀양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가능성 열어
- 19 Global Collaborative 2013
- 20 양궁부 단체전 동반우승, 농구부·야구부 준우승

PEOPLE

- 21 경희 인물 동정

NEWS

- 22 경희 단신

Lux HUMANITAS 룩스 후마니타스

라틴어로 '인류애를 향한 빛'을 뜻하는 말로 평화와 공영을 추구하는 경희의 창학이념을 상징합니다.



9 772005 761002
ISSN 2005-716X

KYUNG HEE UNIVERSITY

‘학술 경희’의 미래 건설



경희의 비전과 목표는 분명하다. 학술적 탁월성 위에서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고 그 성취를 실천으로 연결, 지구적 존엄성(Global Eminence)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교육과 연구 활동의 터전이 될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한다. 경희가 캠퍼스 종합 개발사업 'Space 21'을 추진하는 이유다.

1953년 10월, 경희는 국내 대학 최초로 캠퍼스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지금의 서울캠퍼스를 건설했다. 1973년의 국제캠퍼스 건설도 그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60년 전의 마스터플랜이 '문화세계의 창조'를 위한 기반이었다면 'Space 21'은 '학문과 평화'의 전통 속에서 지구적 존엄성을 구현하며,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인원 총장은 지난해 8월 22~23일 2012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새로 들어설 건물 하나하나에 경희의 전통과 철학,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 모두의 뜻과 의지, 열정과 정성을 담아낼 것"이라며 'Space 21' 사업의 비전을 설명한 바 있다.

'Space 21'은 지난 8월 28일 서울캠퍼스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 6년간 '학술 경희'의 토대를 구축해온 경희는 캠퍼스 종합개발을 통해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 오는 2016년, 경희 캠퍼스는 학술적 성취, 지구적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거듭난다. 경희의 미래, 대학의 미래를 제시할 'Space 21' 사업 현황과 미래 청사진을 그려본다.

'Space21', 2016년 완공 목표

서울캠퍼스, 8월 28일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 서울시에 접수
국제캠퍼스 공간 최적화를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중



'Space 21' 사업 추진으로 서울캠퍼스는 소통과 안전성이 제고된 에코캠퍼스로 거듭난다. 사진은 2016년 완공될 서울캠퍼스의 달라진 모습이다.

캠 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이 서울캠퍼스 개발계획 인허가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8월 28일 인허가 첫 단계인 세부시설 조성 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했다. 이는 구성원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설계를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설계도서에는 건축 배치도, 입면도, 평면도 등이 포함된다.

국제캠퍼스는 공간 최적화를 위한 구성원 간의 소통을 진행 중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는 대로 건축계획 수립,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제캠퍼스는 당초 사업 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로,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허가 변경만 신청하면 된다.

자연환경 살린 에코캠퍼스 구현

이번에 변경된 서울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소통성, 안전성, 친환경성이다.

서울캠퍼스는 고항산 기슭에 위치해 표고 차가 큰 지형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구릉을 깎아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 환경친화적 캠퍼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Space 21' 사업 추진으로 신축될 건물들이 대운동장과 노천극장 주변에 배치된다. 기존 건물과 조화를 이루며 내부와 외부, 건물과 건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지형의 높낮이를 이용, 건물 사이에 열주회랑·중정 등을 배치함으로써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구성원의 휴식·편의 공간도 확대된다.

건물과 건물이 소통하는 공간 창출

'경희의 미래'를 상징하게 될 글로벌타워는 노천극장의 무대 자리에 붉은색 원통형 건물로 지어지며, 기존의 노천극장 부지에는 잔디로 이뤄진 글로벌광장이 새로 들어선다.

대운동장 스탠드 일부와 농구장 부지 위에는 한의과대학과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이 사용할 건물이 배치된다. 문화복지회관(가칭)은 선승문 부근, 기숙사는 대운동장 스탠드의 본부석 부근에 신축된다.

'Space 21' 설계를 맡은 이현호 교수는 "경희의 역사와 전통, 미래비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경희대만의 캠퍼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고전적인 분위기의 기존 건물에 자유롭고 밝은 이미지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신축 건물은 정형화된 틀을 가진 건물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색채를 지닌 공간으로 탄생한다.

보행자와 차량 동선, 지상·지하로 분리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각각 지상과 지하로 분리, 안전성을 높인 점도 돋보인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대운동장과 글로벌광장 지하에 대형 주차장이 들어선다.

차량 동선은 신축 예정인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건물 지하를 거쳐 글로벌광장 지하주차장과 오비스홀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교시탑에서 노천극장에 이르는 언덕길 도로에서는 차량 운행이 최소화된다.

경희는 서울캠퍼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하기에 앞서 지난 2012년 12월 말, 구성원들의 안전 확보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차단을 위해 신축 공사 부지 주위에 공사용 펜스를 설치했다. 이후, 2013년 2월 한 달간 대운동장 스탠드 철거공사를 실시해 'Space 21'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

국제캠퍼스 역시 2012년 2월부터 9월까지 야구장 인근 소재의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해 신축 예정 부지를 매입해왔다.

'세계 명문'을 향한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

경희는 2006년부터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을 준비해왔다. 그동안 공간 수요를 재점검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

신축 면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 일정이 지연됐으나 공간 최적화, 효율성 제고, 재정 안정성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Space 21'은 경희가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적 사업이다. 2012년 5월 4일 이사회가 승인한 'Space 21' 사업 규모는 총 면적 49,756평, 사업비 1,751억원이다. 서울과 국제캠퍼스는 2014년 5월까지 인허가를 취득하고 8월 중 착공, 2016년 1학기 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Space 21' 사업 개요(2012년 5월 4일 이사회 승인 기준)

구분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사업 면적	신축	64,462m ² (19,500평)	신축
개보수				54,024m ² (16,342평)
계				100,020m ² (30,256평)
주요 건물	한의과대학, 이과대학, 간호과학대학, 사이버대학교, 주차장, 부대시설 등		신축 공과대학관, 외국어대학관, 종합체육관 개보수 공과대학관, 동서의학관, 생명과학대학관 기타 옥외 체육시설 임시 조성	
총사업비	834억원		916.8억원	

*구성원 소통 결과에 따라 면적 등이 변경될 수 있음.



글로벌 광장



대운동장에서 바라본 모습



열주회랑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전경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추진 경과

2006년부터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계획 진행, 당초 건설비 60% 줄인 계획안 수립
구성원 협의체 구성·설명회 개최 등 소통 속에 계획안 변경 추진



경희는 2006년부터 캠퍼스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사진은 2012·2010·2009년 서울캠퍼스 조감도(상단), 2010·2009·2008년 국제캠퍼스 조감도(하단)이다.

경희대학교는 2006년, 개교60주년(2009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 계획을 수립했다. 2009년 공개된 'Space 21' 사업은 336,323㎡(101,737여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건설비 4,087억원 규모의 공사였다. 순수 공사기간도 44~45개월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재정은 임대형 민간투자(BTL)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건설비의 장기상환으로 대학이 20년간 지급해야 할 비용은 원금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민간투자사업의 높은 이자비용으로 대학의 재정 부담이 증가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2010년 9월 건축·법률·금융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재정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학의 운용 가능 재원을 분석하고 'Space 21'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후, 2011년 2월 캠퍼스 종합개발 1차 수정안이 발표됐다. 사업비를 약 30% 축소해 2,783억원으로 책정하고, 사업 방식은 대학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동시에 일부 수익형 민자사업(BTO)을 혼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등록금이 건설비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학이 직접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경희대는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 은행 차입(기채)을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의 기채 승인이 나지 않아 1차 수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사업 운영 방식은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 대학 자체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신축 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전면 재수정, 2012년 캠퍼스 종합개발 2차 수정안을 공개했다. 수정안의 골자는 사업비를 1,540억원(서울 750억원, 국제 790억원)으로 조정하고, 교과부의 기채 승인 한도(500억원) 내에서 재정을 운용하는 동시에 최적의 교육·연구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2차 수정안을 토대로 구성원과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현재의 서울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이 수립됐다. 국제캠퍼스는 다양한 수정안을 놓고 구성원 간의 소통이 진행 중이다.

'Space 21' 사업은 21세기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고 있는 '경희의 미래'를 건설하는 상징적 사업이라는 면에서 구성원과의 소통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양 캠퍼스는 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학생·교수·직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차례 구성원 설명회를 거치며 구성원과의 소통 속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희는 최적의 교육·연구 공간을 창조한다는 목표 아래,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으로 공사비를 대폭 축소하고 운영 방식 개선, 공사 기간 단축을 이뤄냈다. 향후에는 2016년 1학기 전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

조인원 총장, “인간적 가치를 고양하는 교육” 강조
Peace BAR Festival 2013, 9월 25~27일 개최



Peace BAR Festival 2013 환영사에서 조인원 총장은 21세기 대학의 사명을 강조했다.

제 32회 세계평화의 날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3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캠퍼스와 평화복지대학원에서 개최됐다. ‘문명과 고등교육: 큰 배움을 찾아서(Civilizations and Higher Education: In Search of Great Learning)’를 주제로 국제회의, 학생포럼, 기념음악회 등 다양한 학술·문화 행사가 펼쳐졌다. 경희대학교는 세계평화의 날(9월 21일)을 기념해 1982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개최해왔다.

반기문 사무총장, 축하 영상 메시지 전달
개회식은 26일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학술회의는 2년 전의 ‘세계평화의 날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2011년 9월 경희대학교는 ‘세계평화의 날 제정 30주년 기념 경희-UNAI

국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조인원 총장은 “문명과 교육의 상관관계에 관한 깊은 성찰은 인간과 세계의 미래를 구성하는 근간”이라며 “인간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인간의 마음이 종식되고, 인간적 가치를 더욱 고양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등교육기관은 더 나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교육, 연구, 실천·봉사를 통해 평화로운 문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대학의 소명”이라고 밝힌 뒤 “생존과 경쟁, 욕망을 위한 성취를 넘어, 더 나은 인간의 문명, 큰 배움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은 문명을 위한 고등교육 방향 모색
개회식에 이어, 서울캠퍼스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제회의·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됐다. ‘문명과 고등교육: 문명 전환기 대학의 도전과 책무’를 주제로 더 나은 인간과 더 나은 문명을 위해 고등교육이 창출해야 할

‘큰 배움’은 무엇인지 구체적 방향을 모색했다.

UNAI 라무 다모다란 국장은 “대학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국제 이슈에 관심을 갖고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면서 “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 등의 노력으로 세계를 넓게 보는 시야를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말레이시아 알북하리 국제대학 라작(Dzulkipli Abdul Razak) 총장은 “지속가능성, 포용성, 공동의 가치를 추구해 인류의 문명을 재건해야 한다”면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간과 세계를 성찰하고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다 나은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라운드테이블 참가자들은 기후변화, 에너지와 식량 고갈, 자본의 세계화, 문명 간 갈등, 디지털 정보통신 혁명에 이르기까지 지구적 차원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문명을 위해 문명사적 대전환기에서 대학의 현재를 성찰하고 고등교육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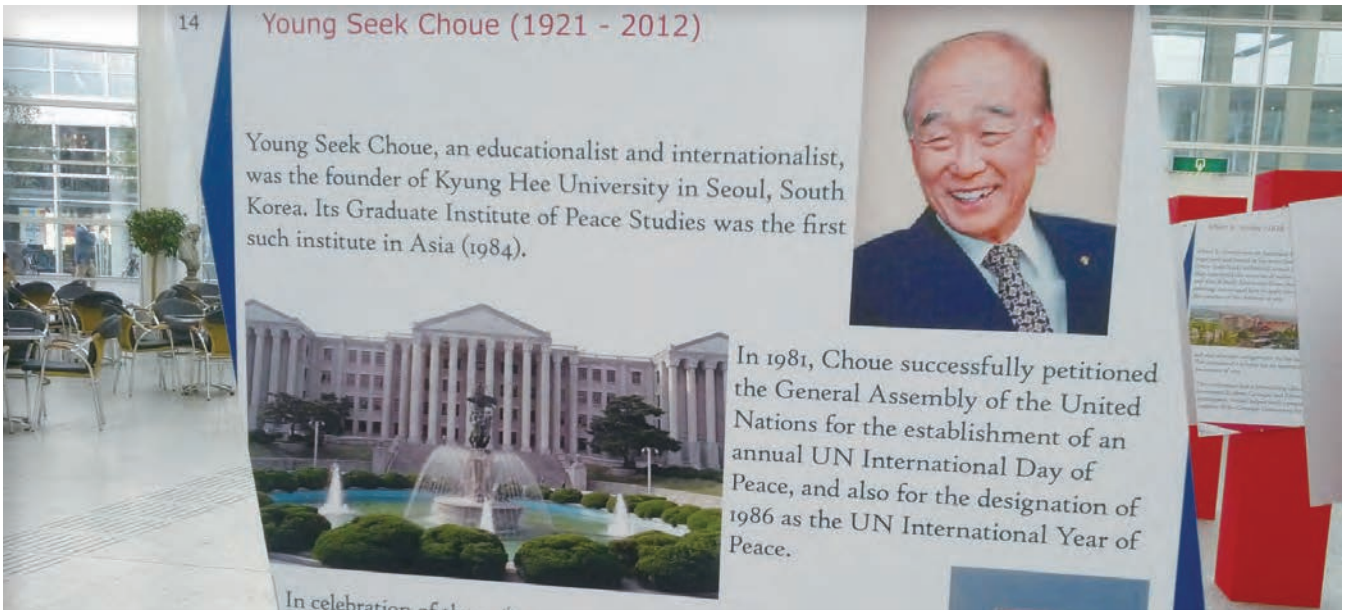
‘UNAI ASPIRE 대학생 선언문’ 채택

Peace BAR Festival 2013 행사 기간, 평화복지대학원에서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이 개최됐다. ‘모두가 만족하는 평화가 가능한가?: 인간안보’를 주제로 열린 포럼은 학생들에게 의해 기획됐으며 26일부터 27일까지 이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인간안보를 통해 바라본 평화’에 대한 대학생의 역할을 토론한 후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대학생 선언문’을 채택했다. UNAI ASPIRE는 교육·연구·봉사를 통해 평화를 추구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자발적 네트워크다.

한편, 평화의 전당에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Peace BAR Festival은 성악과, 기악과, 무용학부, 경희초등학교 중창단 등이 참여한 오페라 ‘가면무도회’ 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조영식 박사, '세계평화 선구자 20인' 선정

네덜란드 헤이그, 8월 15일~9월 21일 평화궁 건립 100주년 기념 전시회 개최
 세계평화의 날 최초 제안, 세계평화대백과사전 편찬 등 업적 소개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Peace Palace) 건립 100주년 기념 '세계 평화운동 역사를 주도한 선구자'로 선정됐다.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궁(Peace Palace) 건립 100주년 기념 '세계 평화운동 역사를 주도한 선구자'로 선정됐다.

헤이그 평화궁은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유엔기구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가 소재한 건물로 유명하다. 1913년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기부한 건축기금으로 지어졌으며, 지난 8월 28일 빌럼 알렉산더르 네덜란드 국왕,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헤이그 시는 세계평화의 날인 9월 21일까지 다양한 평화 이벤트를 개최했다. '평화의 선구자 20인 기념 전시회(Peace Philanthropy-Then and Now)'도 그 행사 중 하나였다. 헤이그 시는 지난 100년간 세계평화에 공헌한 20인을 선정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패널을 제작, 8월 15일부터 9

월 21일까지 전시했다.

노벨상을 제정한 알프레드 노벨을 비롯, 헨리 포드, 존 록펠러 주니어,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등 기업가와 금융인, 여성 평화운동가 코라 와이즈, 소액대출로 빈민의 자립을 지원해온 그라민은행 설립자 무함마드 유누스 등이 20인 명단에 포함됐다. 한국인으로는 조영식 박사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주최측은 아시아 최초로 평화복지대학원(Graduate Institute of Peace Studies)을 설립한 교육자이자 국제주의자(educationalist and internationalist)라고 조영식 박사를 소개했다. 주요 업적으로, 1981년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과 세계평화의 해를 제정하도록 최초로 청원하고 1986년 세계평화백과사전(World Encyclopedia of Peace)을 편찬한 사실을 알렸다. 경희대 캠퍼스 내 유엔평화궁원 및 글로벌NGO콤플렉스 건립을 추진

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전시회 개최에 앞서, 헤이그 시는 자료 조사 및 검증을 거쳐 '세계평화의 선구자 98인'을 선정할 바 있다. '평화의 선구자 20인 기념 전시회'는 이들 중에서도 특히 공헌도가 높은 인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국내 언론들도 조영식 박사의 업적을 조명했다. <월간중앙> 9월호는 일본의 저명한 교육자 이케다 다이사쿠(국제창가학회 회장)의 칼럼 '경희학원 설립자 故 조영식 박사와의 만남'을 게재했다. 이케다 회장은 '세계평화·교육운동에 헌신하며 새로운 인류 비전을 제시했던 인물'로 조영식 박사를 기억하며 각별한 존경을 표했다. 9월 17일자 <조선일보>는 세계평화의 날을 소개하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칼럼을 실었다. 최재천 교수는 '사회변혁을 꿈꾼 계몽주의자'로 조영식 박사를 추억했다.

BK21 플러스 ‘창의인재 양성사업’ 20개 선정

과학기술·인문사회·융복합 분야 6개 사업단, 교수팀 단위 14개 사업팀
향후 7년 동안 연간 71억 1,900만원 지원, 수혜 대상 연구인력 총 2,790명



경희대학교는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에 6개 사업단, 14개 사업팀이 선정됐다. 향후 7년간 총 500억원을 지원받아 대학원의 학술 역량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8월 16일 발표된 ‘BK21 플러스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에 경희의 6개 사업단, 14개 사업팀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희는 향후 7년 동안 연간 71억 1,9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정부 지원금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운영비 등으로 활용된다. 선정된 사업단(팀) 소속 대학원생은 석사의 경우 월 60만원, 박사는 월 100만원, 신진연구자는 월 250만원을 지원받아 연구에 전념할 수 있다. 수혜 대상은 2,790명에 이른다.

대학원 교육 활성화, 연구 경쟁력 제고

‘BK21 플러스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대학원 교육 활성화, 연구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석·박사급 인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계기에 대해 다수의

교수들은 구성원 내에서 학과 발전을 위해 대학원을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업에 선정된 최성호 교수는 “BK21 플러스 사업 선정이 대학원 육성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뒤, “대학의 기본 책무인 학술 역량을 강화하면 학과 발전, 대학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BK21 플러스 사업 유형은 목적과 내용에 따라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경희는 ‘창의인재 양성사업’ 외에도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달·지구 탐사사업단’이 선정, 연구 탁월성을 인정받았다(9쪽 참조).

‘창의인재 양성사업’은 규모에 따라 대형 사업단과 소형 사업팀으로 나뉜다. 사업단은 대학원 학부·학과 단위, 사업팀은 교수팀 단위로 지원이 이뤄진다.

경희의 사업단(대형) 중 과학기술 분야

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단장 홍충선 교수), 농생명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정인식 교수), 한의과학사업단(단장 배현수 교수)이 선정됐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창의형 마이스통합 인재양성단(단장 김철원 교수)이 뽑혔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장진 교수), 고령사회 대비 천연물·바이오 융합 신약개발 창의인재 양성사업단(단장 김동현 교수) 등은 융복합 분야에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사업팀(소형)은 물리 기반 미래인재 양성사업팀(팀장 김영동 교수), 동서양 과학문화에 대한 철학적 성찰(팀장 최성호 교수), 데이터 과학에 기반한 경영 전문 연구인력 양성(팀장 권오병 교수), 결정소재 기능화 공정기술인력 양성사업팀(팀장 김우식 교수), 환경정보 NEXUS 산학연 인력 양성사업팀(팀장 유창규 교수), 하이브리드 에너지 하비스팅

연구팀(팀장 이호선 교수), 오감 증강 미래 통신 인력 양성팀(팀장 신현동 교수), 혁신적 스마트 그린빌딩 기술인력 양성팀(팀장 김선국 교수),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팀장 송기국 교수), 차세대 분자재료 기능 다원화 연구인력 양성팀(팀장 변송호 교수), 나노/마이크로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변환 효율 향상(팀장 김창녕 교수), 차세대 광전자 기반 응용 서비스 플랫폼 사업팀(팀장 유재수 교수), 원자력 지식계승 인재 양성사업팀(팀장 정범진 교수), 글로벌 건설시장 대응형 에너지·기술 융합 건설기술인력 양성팀(팀장 이영학 교수) 등이다.

사업에 선정된 사업단(팀)은 국가 경제·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 관련 기술을 대학원생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국제화된 교육, 창조적 다학제 융합 연구가 가능한 교육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창의적 소프트웨어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단은 전공 심화에 앞선 기초지식을 습득하도록 해 지속가능한 연구 역량을 갖도록 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은 물리·화학·재료·전기전자·기계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실습교육 비중을 높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창의형 마이스통합 인재양성단은 글로벌 영어 전용 트랙 개설과 함께 인터내셔널 스칼라 제도를 활용, 우수 외국인 학생 및 교수 비율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2단계 BK21 사업 종합평가에서 연구 탁월성 입증

‘BK21 플러스’ 사업에 앞서 정부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2단계 BK21 사업을 진행했다. 경희는 4개 사업단, 21개 사업팀이 선정된 바 있으며, 사업 종료를 앞두고 실시된 종합평가에서 16개 사업단(팀)이 ‘우수’ 이상 등급을 받았다. 특히 ‘디스플레이 응용을 위한 프린팅 기초 기술 연구’ 사업팀은 연차평가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을 뿐 아니라, 종합평가에서도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표창 및 포상을 수상했다.

경희의 달·지구 우주탐사사업단 “5년간의 성과 토대로 달 탐사 실현”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선정, 매년 9억 2,800만원 7년간 지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우주탐사학과와 달·지구 우주탐사사업단(단장 문용재 교수)이 ‘BK21 플러스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매년 9억 2,800만원을 7년간 지원받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의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계승 발전시킬 계획이다.

경희는 WCU 사업 우주·국방 분야 제1유형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 2008년부터 5년간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9년 9월 대학원 우주탐사학과를 신설한 바 있다.

우주탐사학과는 국내 최초로 우주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을 개발, 2012년 9월 14일 미국 반덴버그에서 지구 근접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CINEMA) 1기’ 발사에 성공했다. 오는 11월 2기(KHUSAT-1)와 3기(KHUSAT-2) 발사를 앞두고 있다.

시네마 인공위성은 지구 800km 상공에서 태양이 방출하는 이온·중성자·전자 등의 입자를 검출하고 자기장 변화를 측정한다. 초소형 인공위성 3기가 동일 목적으로 우주공간 탐사에 활용되는 것은 세계 최하다.

달·지구 우주탐사사업단은 WCU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버클리대학교와 시네마 1기를 공동개발하는 등 세계 여러 권위 있는 연구단체와 국제협력 관계를 맺고, 해외 석학과의 공동연구로 우주탐사 연구 역량을 강화해왔다. 문용재 교수는 “지난 5년간 달·지구 우주공

간 탐사를 위한 인프라를 갖췄다”면서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을 통해 달·지구 탐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단의 최종 목표는 달·지구 탐사와 우주환경 연구다. 연구가 성공하면 달 표면 국소 지역에 존재하는 자기장의 근원을 규명하고, 달의 기원에 관한 정보 수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소형 인공위성이 달 표면 근처의 자기장을 촬영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우주탐사학과 교과 과정은 우주과학과 우주탐사기술을 아우르는 융복합 교육, 국제 우주탐사 참여를 통한 현장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태양과 달, 지구 근접 공간을 포함하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이론 지식과 현장 경험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 중이다. 이번 BK21 플러스 사업에는 위성실험을 주도할 우주탐사 탑재체 전문 연구자 4명, 달·지구 우주탐사의 관측 및 자료분석 연구자 5명, 달·지구 우주탐사 이론 연구자 4명 등 총 13명의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7년간 115명의 대학원생(석사 55명, 박사 60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우주탐사에는 천문학, 물리학, 전자·전파공학 등 다양한 학문의 융합기술이 요구되며 효율적 연구를 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사업단은 직접 달까지 가는 초소형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 버클리대, 매사추세츠공과대, 영국 임페리얼대 등과 협력관계도 유지할 예정이다.



우주탐사학과는 국내 최초로 우주공간 탐사용 초소형 인공위성 ‘시네마(CINEMA) 1기’ 발사에 성공했다.

세계적 과학저널, 경희의 연구 성과 소개

〈셀〉 〈네이처 포토닉스〉 〈나노테크놀로지〉 〈근거 중심 보완대체의학〉 등에 논문 게재
유전공학과 이은진, 화학공학과 임상혁, 응용화학과의 이민형, 한방병원 김진성 교수



이민형 교수

임상혁 교수

김진성 교수

이은진 교수

최 고 수준의 국제학술지에 경희의 연구 성과가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 유전공학과 이은진 교수, 화학공학과 임상혁 교수, 응용화학과의 이민형 교수, 경희대 한방병원 김진성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생명과학 분야 최고의 저널 〈셀(Cell)〉 7월 3일자에 이은진 교수의 논문 ‘A Bacterial Virulence Protein Promotes Pathogenicity by Inhibiting the Bacterium’s Own F1Fo ATP Synthase’가 소개됐다. 임상혁 교수 연구팀의 논문 ‘Efficient Inorganic-Organic Hybrid Heterojunction Solar Cells Containing Perovskite Compound and Polymeric Hole Conductors’는 〈네이처 포토닉스(Nature Photonics)〉 온라인판에 실렸다. 〈네이처 포토닉스〉는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의 광학 분야 자매지다.

영국 물리학회가 발행하는 나노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 〈나노테크놀

로지(Nanotechnology)〉는 이민형 교수의 ‘Combing Non-Epitaxially Grown Nanowires for Large-Area Electronic Devices’를 7월 19일자 표지논문으로 발표했다. 김진성 교수 연구팀의 논문도 대체의학 분야 최고 권위지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근거 중심 보완대체의학)〉 2013년 특별호에 게재됐다.

유전공학과 이은진 교수, 살모넬라균의 생존 메커니즘 규명

유전공학과 이은진 교수가 살모넬라균의 생존 메커니즘을 규명, 장티푸스 등 관련 질병 예방과 치료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 이 연구는 미국 예일대 에드워드 그로이스먼 박사팀과 공동으로 진행됐다.

살모넬라균이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증식을 위해 세포 내 파고솜이라는 기관에 숨는다. 이전까지 생명과학 전문가들

은 살모넬라균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아주 잘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은진 교수팀은 살모넬라균이 파고솜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몹시 애를 쓴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 살모넬라균은 파고솜에 침입한 뒤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개체 수가 늘어날 때까지 견뎌냈다.

이은진 교수는 “살모넬라균이 세포 속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천천히 개체 수를 늘리고 있는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균의 증식과 질병을 막을 수 있다”면서 “살모넬라균의 생존과 증식 메커니즘을 이용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살모넬라균은 결핵균, 탄저균 등 치명적인 병원성 세균과 성질이 비슷해 이번 연구 결과가 이들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교수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지원으로 세균의 유전자 신호와 반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화학공학과 임상혁 교수, 저비용·고효율 태양전지 개발

화학공학과 임상혁 교수 연구팀이 저비용·고효율 하이브리드 태양전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제조 단가가 낮으면서도 고효율성과 내구성을 지닌 태양전지를 개발하기 위해 무기물과 유기물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소자 구조를 만들어냈다. 연구팀이 개발한 태양전지는 무기물과 유기물을 혼용,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 임상혁 교수는 제조공정을 좀 더 최적화하면 태양전지 효율을 15%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양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상혁 교수는 현재 화학공학과 나노에너지융합시스템 연구실을 맡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이뤄진 이번 연구는 한국화학연구원 석상일 박사 연구팀과 함께 진행됐으며, 허진혁(화학공학 박사 1기) 학생이 논문 제1저자로 참여했다. <네이처 포토닉스> 온라인판에 게재된 연구 결과는 지난 4월 <네이처>와 <나노 레터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응용화학과 이민형 교수,

고분자 이용 나노와이어 정렬 기법 개발

응용화학과 이민형 교수팀이 고분자를 이용해 간편하게 나노와이어를 정렬하는

기법을 개발했다. 나노와이어는 단면 지름이 1나노미터(nm·10억 분의 1m) 정도인 극미세 선으로 저전력 초소형 전자기기 제작에 유용하다. 그러나 화학기상증착법을 통한 성장 과정에서 방향성 없이 무작위로 자라는 성질이 있어, 상용화에 앞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민형 교수팀은 고분자로 만든 롤러로 나노와이어를 빗질해 성장기판 위에 바로 정렬시키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경희대에 부임한 이민형 교수는 나노물질 등 신소재 관련 화학을 직접 실험실습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신소재과학 실험 강의를 신설하는 등 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진로 선택을 돕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신진연구자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응용물리학과 송현욱 교수가 제1저자로 참여했다.

경희대한방병원 김진성 교수,

반하사심탕의 소화불량 개선 효과 밝혀

경희대학교한방병원 김진성 교수 연구팀이 반하사심탕의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 효과를 임상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반하, 황금, 인삼, 감초, 건강, 황련, 생강, 대추 등을 달인 반하사심탕은 한방에서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에 주로 쓰여왔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상복부에 통증과 복부 팽만감이 반복되는 질환이다.

김진성 교수 연구팀은 반하사심탕이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중에서도 조기 포만감을 줄여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위진도 검사를 통해 비정상적인 리듬인 위빈맥이 감소한 것을 확인, 반하사심탕이 위 운동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입증했다. 연구결과는 향후 반하사심탕의 정확한 처방에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산업진흥원 정부 과제를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에는 경희대한방병원 류봉하 교수, 강동경희대한방병원 박재우 교수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김진성 교수는 “두 기관이 양쪽에서 실험해 똑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는 점에서 연구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구강질환 연구와 치료에도 주력해온 김진성 교수는 설진(혀 진단) 중 설태후박에 대한 객관적 진단 기준을 개발, 연구 결과를 SCI 저널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보완대체요법)>에 게재하기도 했다. 현재 노인 구강건조증 치료를 위한 임상실험,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체질과 유전자 분석 등에 따른 침 치료 효과 연구를 진행 중이다.

최유진 학생, SCI 학술지에 논문 게재

침 자극 방법에 따른 진통 효과 규명, 한의학의 과학성 세계에 알려

한 의학과 최유진(09학번) 학생의 논문이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국제 학술지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보완대체요법)> 6월호에 게재됐다. 논문은 ‘침 자극과 득기감, 압통의 상관관계 연구’로, 득기감은 침을 맞았을 때의 느낌을 뜻한다. 최유진 학생은 침을 놓는 방법에 따라 득기감과 진통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그동안 침의 느낌과 진통 효과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명확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유진 학생은 “피험자들에게 한 가지 방식으로만 침을 놓았던 이전

연구와 달리, 침의 깊이와 비틀기 등을 달리하며 다양한 비교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피험자 53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을 깊게 놓았을 때와 비틀었을 때 득기감이 커지고 진통 효과(압통역치)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득기감과 압통 사이에도 뚜렷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는 한의학 원전에 있는 내용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이다.

최유진 학생은 한의과대학 학부생연구참여프로그램(URP)을 통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URP는 학부생 스스로 연구를 수행하며 연구 역량을 기르고 전문지식을 심화할



SCI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최유진 학생.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 연구계획을 세운 학부생을 선정, 연구지원비와 함께 교수의 1대1 지도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 URP에 지원한 최유진 학생은 한의학과 문원경(08학번), 유도현(09학번) 학생, 경희대한방병원 신경정신과 이재은 수련의와 팀을 구성, 1년간 연구를 진행했다.

경희의 인문·사회계열 3개 학과 전국 ‘최상위’

2013 중앙일보 학과평가: 영어학부 3년 연속 ‘최상위’, 철학과 1위, 정치외교학과 2위
국제학술지 논문 수 등 교수 역량 부문에서 높은 점수, 연구비 지원도 가장 많아



2013 중앙일보 학과평가에서 철학과와 정치외교학과는 SCI 논문 수에서 각각 전국 1위와 2위에 올랐다. 사진은 영어학부 수업.

영어학부·철학과·정치외교학과 등 경희의 인문·사회계열 3개 학과가 ‘2013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올랐다. 철학과의 경우, 최상위권으로 평가된 대학은 4년제 대학 중 경희대가 유일하다. 영어학부는 3년 연속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중앙일보는 매년 대학평가 종합순위 발표에 앞서 학과별 순위를 발표한다. 올해는 전국 138개 4년제 대학의 인문·사회계열 10개, 이공계열 10개 등 총 20개 학과를 대상으로 학과평가가 이뤄졌다. 최상위권 대학은 해당 학과가 운영되는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 수, 논문 수, 학생당 장학금, 취업률 등 8~9개 지표의 종합점수가 상위 2.28%에 드는 대학을 말한다.

경희는 특히 교수 역량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주요 평가 항목인 교수 1인당 국제학술지(SCI) 논문 수에서 철학과는 전국 1위, 정치외교학과는 2위를 차지했다.

영어학부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영어학부는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75개 대학 중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는 3위였다.

세부 평가지표 중에서 교내외 연구비, 교수 1인당 논문 수가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 영어학부는 전임교원 1인당 자체 연구비(16,376,000원), 외부지원 연구비(7,882,400원) 항목에서 전국 2위와 6위를 기록했다.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1.5편, 국제학술지(SCI) 논문 0.2편으로 4위에 올랐다.

영어학부는 영어교육을 기초로 영문학 전공·영어학전공·통번역학전공 등 3개 전공의 학부체제로 운영된다. 인문교육과 실용교육이 조화된 커리큘럼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실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수업을 영어로 진행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해외대학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 국제화도 선도하고 있다. 특정 영화 또는 주제를 놓고 교수와 학생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영미문화비평, 국제행사 통번역 모의실습 등 차별화된 교과 과정을 운영,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학부의 실용교육은 인문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다. 예컨대 자기소개서(영문) 작성을 지도할 때도 ‘자기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주체적으로 미래를 전망해볼 수 있도록 돕는다.

김석 학과장은 “가시적 생산성과 실용성 위주로 학과 평가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경희대 영어학부는 학과의 질과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영어학부는 시대의 빠른 변화, 지구적 다문화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2년마다 커리큘럼을 새롭게 개편하고 있다.

철학과

철학과 순위는 지난해 5위에서 4계단 올랐고 등급은 상위권에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했다. 순위 상승을 이끈 요인은 교수 역량 부문의 탁월성인 것으로 분석된다. 경희대 철학과는 교수 1인당 SCI 논문 수가 0.34편으로 전국 1위였다. 국제학술지에 철학논문을 게재한 대학은 12곳뿐이며, 타 대학의 논문 편수는 0~0.19편에 불과하다.

철학과는 교수들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학문적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연구에 매진하는 학술문화를 조성해왔다. 해외교원 초빙제도와 연구조교수제도를 활용, 국내외에서 탁월성을 인정받는 우수교원을 영입해 교육·연구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저명한 외국인 학자를 초빙, 국제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교수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한다.

경희대 철학과는 전임교원 1인당 자체 연구비(41,072,000원)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부분의 대학은 1,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호 학과장은 “타 대학이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적은 반면, 경희대는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희대 철학과 재학생 수는 183명으로

전국 대학 중 다섯 번째로 큰 규모다. 철학과는 규모를 늘리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다. 타 학문과의 연계교육으로 인간과 세계를 통찰하는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

‘철학·문학 트랙’을 도입, 영문학과와 국문학과와의 전공과목을 수강할 수 있게 했다. 실용학문과 연계된 복수전공·연계전공·부전공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최성호 학과장은 “철학은 폭 넓은 시야를 갖고 다른 학문과의 연관 속에서 인간과 세계를 통찰하는 학문의 성격을 지닌다”면서 “철학을 공부한 후 직업교육을 받으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향상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외교학과

정치외교학과는 지난해 5위에서 3계단 올라선 2위를 차지했다. 평가된 대학은 총 41개 대학이다. 총 9개 지표 중 7개 지표에서 10위권 안에 들며 종합점수를 높였다.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수는 0.34편으로 전국 2위, 1인당 자체 연구비(17,018,300원)는 3위였다.

1952년 개설된 정치외교학과는 ‘세계화

시대의 창의적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성찰적 리더십과 실천적 전문성이 겸비된 고유의 학풍을 세웠다. 학문 연구를 강조하며 정치학박사를 선도적으로 배출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에 유능한 인재를 진출시켰다. 경희 동문들은 국제기구·정치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동문·재학생·교수 간의 긴밀한 유대감도 학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치외교학과는 동문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 매 학기 ‘멘토링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관심 있는 분야의 동문 선배들로부터 취업과 학업 등에 관한 조언을 얻고 있다. 정종필 학과장은 “동문들의 특강 시리즈와 교수·학생 간담회 등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외교학과는 교육역량강화지원 사업을 통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U-Penn) 등 해외 우수 대학과 전공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대학생 모의 유엔(UN)회의, UN 인턴십 프로그램, 안보토포론회 등에 영어 패널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 학생들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QS 세계대학평가 15계단 상승, 세계 255위

교수 1인당 학생 수 116위, 졸업생 평판도 139위
5년간 신입교원 639명 임용·제도 확대 등 학술 진흥의 성과

경희대학교가 ‘2013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5계단 상승한 세계 255위를 차지했다. 지난 6년간 학술의 탁월성을 추구하며 우수교원을 신규 임용하고 다양한 연구지원제도를 확대 실시하는 등 학술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경희는 2011년 처음으로 세계 200위권에 진입한 후 3년 연속 200위권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는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 학계 평가, 졸업생 평판도, 교

수 1인당 학생 수 등 6개 지표 모두에서 점수가 향상됐다. 특히, 졸업생 평판도 점수가 큰 폭(11.9점)으로 상승, 지난해보다 27계단 오른 139위를 기록했다. 졸업생 평판도 상승은 전 세계 기업인들이 경희의 높은 교육 수준과 경희대 졸업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경희는 지난 6월 발표된 QS 아시아대학평가에서도 졸업생 평판도가 지난해 81위에서 51위로 크게 높아진 바 있다.

이번 세계대학평가에서 경희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116위의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5년

간 639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하며 학술공동체를 강화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우수 외국인 교원도 같은 기간 74명에서 150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경희는 교수가 연구와 질 높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우수 교원을 지속적으로 영입해왔다.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Quacquarelli Symonds)가 주관하는 ‘QS 세계대학평가’는 연구, 교육, 졸업생, 국제화 등 4개 분야, △교수 1인당 논문 피인용 수(20%) △학계 평가(40%) △졸업생 평판도(10%) △교수 1인당 학생 수(20%) △외국인 학생 비율(5%) △외국인 교수 비율(5%) 등 6개 지표로 평가된다. 올해는 전 세계 3,00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계 1위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 MIT가 차지했다.

조인원 총장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도전정신” 강조

‘미래대학의 창조적 리더십: 학술과 재정’을 주제로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 8월 23일 광릉캠퍼스에서 열려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에서 교무위원들은 '학술 경희'의 미래에 대해 토론했다.

지난 8월 23일 광릉캠퍼스에서 ‘미래 대학의 창조적 리더십: 학술과 재정’을 주제로 2013학년도 2학기 합동교무위원연찬회가 열렸다. 이날 서울과 국제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무위원들은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과 중장기 재정계획 ‘Finance 21’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하기 위한 경희의 학술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조인원 총장은 인사말에서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의 저서 <불가능의 예술 (The Art of the Impossible)>을 소개한 뒤, “하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우리 자신과 세상을 개선하는 예술이 정치’라는 의견을 피력한 색다른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벨의 이런 관점은 학술과 실천을 통해 더 나은 인간의 세계를 추구해온 경희의 설립정신과도 맥을 같이 한다”면서 “학술 역량을 증진해 ‘학술 경희’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Space 21’과 ‘Finance 21’

연찬회 첫 순서로, 이준규 재정부총장이 ‘건설과 재정’ 현황을 보고했다. “2016년 1학기 전에 완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Space 21’ 향후 일정을 밝힌 뒤 경희의 재정 현황과 ‘Finance 21’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재정과 관련, 객관적 평가를 위해 서울 시내 주요 3개 사립대학과의 비교 분석이 이뤄졌다. 지난 5년간 경희의 수입은 연평균 4,101억원으로, 3개 대학(평균 5,989억원)에 비해 적었다. 등록금을 3년 연속 동결·인하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출의 경우, 경희는 균형예산 원칙 아래 수입 규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왔다(평균지출 4,102억원). 같은 기간 누적증가율은 32.5%로, 3개 대학 평균 31.3%보다 높았다. 639명의 교수를 신규 임용하고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 교육·연구 부문의 지출이 특히 늘었다. 그 결과, 3개 대학이

후자예산으로 적립금을 축적해온 반면, 경희의 적립금은 2007년 1,246억원에서 2012년 1,004억원으로 감소했다.

경희는 예산제도를 개선하고 거교적 차원의 재정위원회를 구성, 장학이념과 대학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학술 경희’의 미래

오후에는 학술 중심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경희의 미래: 철학과 창조’를 주제로 발표한 남순건 대학원장은 “경희의 미래를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신감 회복,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 실행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학, 거장, 대가의 길’을 주제로 한 대담·토론은 도정일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사회로 진행됐다. 한림대 송승철 교수(영어영문학과), 경희대 김상준(공공정책대학원), 김선국(전자·전파공학과), 이동훈(대학원 우주탐사학과) 교수 등 4명이 패널로 참가했다.

이동훈·김선국 교수는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학술 경희’의 미래 가능성을 들려줬다. 김상준 교수는 발전 가능성이 큰 신진 연구자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유연한 인사제도를 제안했다. 송승철 교수는 “양적 평가보다 질적 평가를 중시하는 인문학 전통을 확립할 때 경희가 세계적 석학, 거장, 대가를 배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연찬회는 ‘학술 경희’의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원탁회의, 그리고 ‘세계적인 학과·전공·프로그램,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한 부총장 주제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2013년 정년연장교원 5명

일본어학과 미노와 요시츠구, 전자·전파공학과 조원경, 의전원 허주엽, 화학공학과 정석진, 한의학과 이경섭 명예교수

2013 학년도 정년연장교원 5명이 선정됐다. 일본어학과 미노와 요시츠구 명예교수, 전자·전파공학과 조원경 명예교수, 의학전문대학원 허주엽 명예교수, 화학공학과 정석진 명예교수, 한의학과 이경섭 명예교수 등이다. 경희는 학문을 향한 구성원의 열정과 의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 일환으로 교육·연구·실천 분야에서 업적이 탁월한 교원의 정년을 70세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정년연장교원제도를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미노와 요시츠구 명예교수
와세다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쇼와여자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미노와 요시츠구 교수는 1987년 일본어학과 객원교수로 초빙되면서 경희와 인연을 맺었다.

미노와 요시츠구 교수는 홋카이도 원주민인 아이누 민족 문학의 권위 있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아이누 문학은 이야기가입으로만 전해지고 감탄사가 많아 이를 잘 해석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 오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그는 “정년연장제도를 통해 못다 한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조원경 명예교수 1980년 경희대에 부임한 전자·전파공학과 조원경 명예교수는 현재 집적회로(IC)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CSA & VLSI 연구실 지도교수를 맡고 있다. 지금까지 SCIE급 저널을 포함한 국내

외 주요 학술지에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경희대 교수로 있으면서 연구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어 좋았다”면서 “정직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스스로 발전을 이룬 기회의 시간이었다”고 지난 30여 년을 회고했다.

“과거에는 도로·항만·전기 등의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했다면 미래에는 지식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조원경 교수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여러 사람과 나누고 대중화해서 국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허주엽 명예교수 경희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인 허주엽 명예교수는 만성골반통 분야의 개척자로 유명하다. 미국에서 만성골반통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뤄진 2004년보다 훨씬 앞선 1996년부터 만성골반통을 국내에 소개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만성골반통은 골반 주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병이다. 내시경으로도 증세 확인이 어려워 아직까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허주엽 교수는 만성골반통의 근본 원인 규명과 표준 치료지침 개발을 위해 지난 2005년 만성골반통연구회를 발족하고 2010년 대한만성골반통학회를 창립했다. 최근에는 증상과 치료법 등을 담은 저서 <만성골반통>을 출간했다.

“정년연장 기간 동안 만성골반통에 관한 연구를 확대하고 논문으로 정리해 더 많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밝힌 그는 미개척 분야인 만성골반통 치료에 경희 의료기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학 양성에도 힘을 계획이다.



정석진 명예교수 1983년 부임한 화학공학과 정석진 명예교수는 촉매 및 반응공학 분야, 특히 신에너지와 환경 관련 연구에 오랫동안 몰두해왔다. “21세기에는 화석에너지가 고갈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한 정석진 교수는 70여 편의 관련 논문을 <Journal of Molecular Catalysis>, <Applied Catalysis> 등 국내외 촉매 분야 유명 저널에 발표했다.

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청정 신에너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석진 교수는 “공학자로서 이를 사회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신에너지와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 교양서를 집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섭 명예교수 강남경희한방병원장을 맡고 있는 이경섭 교수는 1966년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후 경희와 함께 47년간의 의료 인생을 살아왔다. 부인과 전문의로서 불임증, 냉증, 자궁근종을 치료·연구하며 ‘조경중옥당이 난소 기능에 미치는 영향’, ‘불임증의 임상적 고찰’ 등 많은 논문을 발표했다.

이경섭 교수는 학의학 교육과 대중화에도 앞장섰다. 양방에서 쓰이는 여성 인체해부도를 한의학과 학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방에 맞춰 저술한 전공서적 <도해 임상부인과학>을 펴냈으며, 일반인을 위한 건강상식 저서도 꾸준히 집필했다.

이경섭 교수는 양방의 첨단 진단기술을 한방 진료에 적극 융합, 동서신의학 발전을 이끌었다. 여성 냉증과 냉과과민증의 한방 치료를 위해 적외선체열진단법 도입을 주도했으며 원격외선·자기장·온열요법 등을 이용한 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해왔다. 1991년 한방교수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교환교수(임상)로 재직하며 한의학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경희의 이름을 알렸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6년 연속 선정

2008년 사업 실시 후 6년간 총 166억원 지원, 교육의 질·국제경쟁력 제고
 '인성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된 경희대학교는 총 166억원을 지원받아 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경희대학교가 교육부의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교육 분야 최대의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교육부는 2008년부터 국내 고등교육의 질과 국제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대학을 선정하고 자체발전계획을 지원해왔다. 평가 항목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 교육 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등 교육지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희는 22억 3,1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2012년까지 5년간의 143억 9,000만 원을 포함, 지원금 총액은 166억원에 이른다. 교육의 질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노력을 기울여온 경희는 올해 '인성을 겸비한 융합형 창의인재 육성'을 목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인턴십(Study in Field

Program), 맞춤형 취업진로 지도, 개방강좌(Open Class), 교수·학생·튜터 연계 포트폴리오, 후마니타스칼리지 스터디그룹 아레테(Arete), 융합형 창조인재 양성을 위한 C3(Character-Convergence-Creativity)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과평가 결과, 3년 연속 '우수대학'

경희는 2012년까지 5년간 총 143억 9,000만 원을 지원받아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왔으며,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를 인정받았다. 창의적 사업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2009년 성과평가 최우수대학, 2010년 사업계획 컨설팅 최우수대학, 2011년과 2012년 성과평가 우수대학에 선정됐다. 높은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로 5억여 원을 추가 지원받기도 했다. 특히 후마니타스칼리지 중핵교과 수강생들의 교양 심화 스터디그룹 아레테(Arete)는

2012년 학생역량 부문 최우수 사례로 꼽힌 바 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경희는 지난 7월 10일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대학으로 조기 확정됐다. 교육여건 및 성과에 대한 1단계 정량평가에서 150개 대학 중 상위 72개교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하위 10개교는 2단계 정성평가 결과를 거쳐 7월 말 결정됐다.

ACE사업 중간평가 '우수' 등급 획득

경희의 교육 탁월성을 입증하는 또다른 사례는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지원사업'이다. 2011년 경희는 수도권 11개 종합대학(재학생 1만 명 이상) 중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잘 가르치는 대학'의 위상을 높였다. 올해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 기본사업비 24억원 외에 9,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경희대, 인문학 강조하는 대학”

슬라보예 지젝, 9월 24~26일 3회 연속 특강
글로벌 자본주의, 현대문명의 이데올로기 비판적으로 성찰



경희대학교 초청으로 세 차례 강연한 슬라보예 지젝은 지난 7월 경희의 에미넌트 스칼라로 임용됐다.

세계적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이 경희대학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세 차례 강연했다. 9월 24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린 첫 번째 특강에서 지젝은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글로벌 자본주의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를 제시했다. 이날 교내외에서 3,500여 명의 청중이 좌석을 가득 채웠다.

지젝은 25일 강남 플레톤극스탈레 강연에 이어, 26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세 번째 특강을 들려줬다. 이날 35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지젝은 이데올로기에 관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허구성 지적

슬로베니아 출신의 지젝은 헤겔과 라캉, 마르크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사회현상을 새롭게 해석하는 비판이론가다. 경희대학교는 지난 7월 지젝을 외국어대학 글

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에미넌트 스칼라(Eminent Scholar)로 임용한 바 있다.

9월 24일 첫 강연 첫머리에서 지젝은 이탈리아 사회비평가 프랑코 베라르디가 한국 사회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베라르디는 한국이 전쟁의 흔적들로 황폐화된 환경에서 그 어느 문화권보다 자연스럽게 디지털 시대로 전환, 삶의 많은 부분이 개선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의 사막화와 극단적 개인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젝은 “베라르디가 묘사한 한국의 모습은 ‘세계 없음’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자본주의가 글로벌 하긴 하지만 사실상 ‘세계 없음’의 이데올로기를 그려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존재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지젝은 현대문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삶의 디지털화로 인해 공격적인 이성의 공간이 사유화돼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칸트에게 있어 국가기관

과 국가관료주의는 특정한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격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것이며, 집단적·사적 이해에 제한 받지 않고 논쟁을 벌일 수 있는 철학과 과학 같은 이성의 영역이 공격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지젝은 “경희대가 여전히 인문학을 강조하는 몇 안 되는 대학이라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폐기학습’에 의해 강화되는 이데올로기

26일 세 번째 특강에서 지젝은 현대문명의 이데올로기 문제점을 지적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서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라면서 “무지 또한 사회적으로 구조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과 무지의 구조화 요소 중 하나로 ‘폐기학습’을 꼽았다.

지젝은 마틴 루터 킹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언급하며 폐기학습을 설명했다. 마틴 루터 킹은 인종차별 철폐운동을 확대하며 차츰 좌파 쪽으로 넘어가던 중 괴한에 의해 살해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나에게는 꿈이 있다(I Have a Dream)’는 연설만을 기억한다. 지젝은 “마틴 루터 킹을 위대한 인물로 추앙하기 위해 진실의 일부분을 희생(폐기)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지젝은 “자신이 느끼는 쾌락이 외부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강요된 쾌락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쾌락은 ‘자발적으로 강렬한 즐거움을 갖는 것’인데, 현대인들은 쾌락마저도 학습을 통해 느끼고 통제한다. “현대인들이 남녀 사이의 성과 같은 사적인 것까지도 학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젝은 “우리의 지식이 빠르게 성장해 원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더 고립될 것”이라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점차 무기력해지고 기계에 의해 조종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적 통제의 밖에서 과학이 점점 더 위협해지고 있는 ‘미친 세상에 대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개발 가능성 열어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효종 교수, 베돌리주맙의 치료 효과 입증
세계 최고 권위의 임상 저널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에 논문 게재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효종 교수의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임상저널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사진 왼쪽 하단)에 게재됐다.

경희의료원 소화기내과 김효종 교수가 생물학적 제제인 베돌리주맙(Vedolizumab)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치료에 효과에 있음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임상 저널 <뉴잉글랜드저널 오브 메디슨(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 8월 22일자에 게재됐다. <NEJM>은 논문 인용지수(IF)가 51.6으로, 논문인용지수 면에서 <사이언스>의 31, <네이처>의 38.5를 크게 앞선다.

화학적 치료제 뛰어넘는 생물학적 제제

베돌리주맙은 특정한 항원결정기에만 항체반응을 하는 단일 클론항체의 한 종류다. 김효종 교수는 “베돌리주맙은 대장염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림프구가 염증성 장질환에 관여하는 장관점막으로 이동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베돌리주맙을 많이 배양해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생물학적 제제는 백신·항체 등 사람의 몸속에서 얻어진 물질을 약용화한 것이다. “화학적 합성 약은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전한 김효종 교수는 “분자생물학을 통해 병의 기전이 밝혀진 상황에서는 몸속의 관련 기능을 억제하거나 증강하는 물질이 필요하다”면서 “생물학적 제제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화학적 치료제가 병의 증상을 줄여줬다면 생물학적 제제는 병 자체를 낮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효종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염증성 장질환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염증성 장질환 치료의 선도적 역할 수행할 것”

김효종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34개국 211개 대학병원 교수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동양 의사

가 서양 의사들과 궤양성대장염·크론병의 국제적 연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50~60년대 서구사회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두 질환은 식생활의 서구화가 진행된 1980년대부터 국내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화와 함께 진행된 질환인 까닭에 이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는 아직 없다. 김효종 교수는 “한국 대표로 다국적 임상실험에 참여하면서 한국 의료계의 우수성과 함께 의과학 경희의 이름을 알릴 수 있어 뿌듯하다”며 “향후 관련 분야에서 한국 교수들이 국제적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희의료원 소화기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효종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연구·치료에 주력하며 환자들을 위한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 그는 “경희의료원이 염증성 장질환 치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만의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이끌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lobal Collaborative 2013, 인류문명과 글로벌 거버넌스 모색

7월 1일~25일 개최, 28개국 대학생 331명 참가



'Global Collaborative 2013 Summer Program'에 한국·미국·중국·독일 등 세계 28개국의 대학생 331명이 참가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애브너 벤너(Avner Ben-Ner) 교수는 “점점 다양화돼가는 세상에서 각기 다른 배경에서 성장한 학생들이 어떻게 서로 교류하고, 함께 일하며 더불어 살아갈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경희의 하계 국제협력대학 'Global Collaborative Summer' 프로그램을 평가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Global Collaborative 2013 Summer Program'에는 한국·미국·중국·독일 등 세계 28개국의 대학생 331명(국내 115명, 해외 216명)이 참가했다.

올해 주제는 '인류, 문명과 글로벌 거버넌스'였다. 인류와 문명, 평화와 발전, 글로벌 의식과 서비스 등 3개 트랙에서 13개 강좌가 개설됐다. 문화·경제·사회·과학 등 각 분야 세계 석학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실무진이 영어로 강의를 진

행했다. 수강 학생들은 개설된 13개 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한 강의당 3학점씩 총 6학점까지 학점 인정이 가능하다. 태권도 수업, 서울 투어, DMZ·전주한옥마을·보령머드축제 방문 등 한국문화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Civic Service'를 통해 시민단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에 파견, 인턴십을 경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비누스대학에서 회계·정보 시스템을 전공하는 위디아나(Widiana) 학생은 “세계 각국의 친구들을 만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말했다.

2006년 펜실베이니아대학과의 교류협력에서 출발한 'Global Collaborative Summer'는 중국 베이징대학,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 유엔기구 등이 새롭게 참여하면서 보다 세계화된 프로그램으로 확대·개편됐다.

세계적 석학 대담 Global Dialogue

경희대학교는 올해부터 석학들과의 대담 'Global Dialogue Series'를 새로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석학들의 생각을 세계시민과 공유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성찰과 대안 모색의 기회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대담은 경희대와 경희사이버대 홈페이지 웹캐스트로 생중계됐다.

첫 번째 대담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됐다. 유엔지구협약(UN Global Compact) 창시자이자 기업윤리철학 분야의 석학인 올리버 윌리엄스 미국 노트르담대 교수(경희대 International Scholar)와 이병남 LG 인화원장이 참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 경영의 시대적 소명에 관한 성찰'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윌리엄스 교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대해 “과거에는 인류학적인 자선활동을 의미했지만, 비즈니스가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오늘날 CSR은 지속가능한 가치를 지역사회를 비롯해 직원, 공급업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7월 22일 열린 두 번째 대담에는 국제정치·외교정책 분야의 세계적 석학 존 아이켄베리 미국 프린스턴대학 석좌교수(경희대 Global Eminent Scholar), 동아시아지역 안보 전문가인 주평 중국 베이징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이날의 주제는 '중국의 부상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미래'였다.

존 아이켄베리 교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동아시아 안보문제를 우려하며 “각 나라가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체계화된 규약을 만드는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6일 열린 첫 번째 Global Dialogue.

양궁부, 남녀 단체전 동반우승 농구부·야구부, 준우승 차지

대통령기 양궁대회, KB대학농구, 전국대학야구대회 성과



9월 9일 전국대학야구대회 결승전이 끝난 후 조인원 총장이 운동장으로 내려가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희대 체육부가 2013년 하반기에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스포츠 경희'의 위상을 높였다. 양궁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제31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대학부 단체전에서 6년 만에 남녀 동반우승을 차지했다.

강원도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남자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경희대는 오성식, 김도훈, 최건태, 박성호 학생이 팀을 이휘 배재대를 207-206, 1점 차로 따돌리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여자대학부 단체전에서는 김희애, 김지혜, 이슬기, 전훈영 학생

이 순천대를 꺾고 우승했다. 김희애 학생은 여자대학부 개인전 결승에서도 금메달을 따내 2관왕에 올랐다.

농구부는 2013 KB국민은행 대학농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3전 2선승제)에서 아깝게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정규리그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한 경희대는 대회 통합우승 3연패 기록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와의 최종 3차전에서 역전패했다. 이날 조인원 총장은 경기 종료 후 "챔피언 결정전까지 올라오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보여줘서 고맙고,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야구부는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열린 제6회 KBO총재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첫 경기에서 세한대를 5-1로 꺾고 16강에 진출한 경희대는 한양대, 경남대, 경성대를 차례로 제압하며 결승에 올랐다. 경희대는 3경기 연속 역전승을 거두는 뒷심을 발휘했다.

9월 9일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전에는 조인원 총장과 교직원, 학생 등 600여 명이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날 4회까지 인하대에 0-5로 뒤지고 있던 경희대는 이후 추가 실점을 막으며 8회 초 2점을 따라잡았다. 9회 초 1사 1, 3루의 역전 기회를 잡았으나 홈런성 타구가 펜스를 맞고 나와 1득점에 그쳤다. 조인원 총장은 시상식이 끝난 후 운동장으로 내려가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민구 학생, FIBA 아시아농구 '베스트 5'

한국대표팀 최다 114득점 기록, 2014 농구월드컵 진출에 큰 역할

경희대학교 농구부 김민구(스포츠지도학과 10학번) 학생이 국제농구연맹(FIBA)이 주최한 제27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 '베스트 5'에 선정됐다. 지난 8월 1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민구 학생은 3점슛 25개를 포함, 114점(경기당 평균 12.7점)을 득점하며 한국대표팀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골을 기록했다.

한국은 8월 10일 필리핀과의 준결승에 패했으나 김민구 학생은 경기 최다득점(27점)을 올렸다. 11일 대만과의 3~4위 결정전에서도 김민구 학생은 21점을 득점, 한국이 2014 스페인 농구월드컵 출전권을 획득하는 데 기여했다.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것은 1998년 그리스 세계선수권대회 이후 16년 만이다.

경희대는 2011년부터 대학농구대회를 제패하며



대학 최강으로 군림했다. '경희대 삼총사'로 불려온 김민구, 김종규, 두경민 학생은 올해를 끝으로 '자주색 유니폼'을 벗는다. 이들은 최근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1~3순위로 지명돼 화제를 모았다.

정보디스플레이학과 한민구 석좌교수 임명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석좌교수에 한민구 교수가 임명됐다. 29년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를 지낸 한민구 교수는 1979년 비정질실리콘 박막 트랜지스터와 박막 태양전지 연구를 시작해 이 분야에서 1세대 연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한민구 석좌교수는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한국나노기술연구협회 회장, 한국공학한림원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학회활동도 펼쳐왔다. 대한민국 학술원상, 한국공학상, 대한민국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세계적 권위의 디스플레이학회 SID 펠로우 어워드,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을 수상해 학술적 탁월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한민구 석좌교수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5년간 학기당 3학점(1과목)을 강의하고, 월 1회 집중 강의 또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생과 함께 박막 태양전지 연구를 수행하고 연간 2편의 논문을 출판한다. 대기업과의 산학 공동 연구개발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명숙 교수,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



무용학부 박명숙 교수가 제58회 대한민국예술원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4개 부문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되는 예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박명숙 교수는 '교육을 통해 무용 발전과 후진 양성에 기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연극·영화·무용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 최초의 현대무용단 한국컨템포러리무용단 창단(1975) 멤버인 그는 1978년 박명숙댄스시어터를 창단한 이래 꾸준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무용학부 교수들, 14년간 장학금 3억 3,700만원 기부

무용학부 교수들의 장학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박명숙 무용학부장과 김말애·김화례·안병주 교수 등 15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3억 3,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무용학부 교수들은 자발적으로 기부약정을 맺고 매달 급여에서 최대 100만원을 기부해왔다. 재직 교수 가운데 5명은 정년까지 5,000만원을 더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박명숙 학부장은 "무용 전공 학생 중에는 재능이 충분하는데도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 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부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무용학부 재학생과 졸업생, 직원들도 경희의 소액기부운동 '매그 놀리아 스토리'를 통해 장학기금 마련에 동참하고 있다.

홍성언 교수, 대한암학회 학술상 수상

경희대학교병원 방사선종양학과 홍성언 교수가 제39차 대한암학회 학술대회에서 머크세로노학술상을 수상했다. 머크세로노학술상은 대한암학회의 SCI 학술지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에 실린 임상논문 중 3편을 선정, 저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홍성언 교수의 논문 '진행된 직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수술 전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의 치료 결과와 예후인자 분석'은 장기간에 걸친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결과 도출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박정미 교수 연구팀, 미국 MD링스 우수논문 선정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내과 박정미 교수와 영상의학과 장건호·류창우 교수 연구팀 논문이 미국 MD링스 마취학 분야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박정미 교수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국소마취 전후의 침 자극 영향 차이'를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fMRI)으로 증명했다. 국소마취 전 곤륜혈(복사뼈와 인대 사이)에 침 자극을 주면 의미·지각·실행 기능과 통증 전달 영역이 활성화되고, 마취 후 침 자극에는 시각·청각·체감각 등 1차 감각피질이 반응을 보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대체의학 분야의 저명 학술지 <eCAM>에 게재됐다.

김태영 명예교수, 석사학술상 수상

사학과 김태영 명예교수가 제3회 석사학술상을 수상했다. 석사학술상은 실학과 한국학 분야에서 학술적 업적과 공로를 세운 학자에게 수여된다. 김태영 명예교수는 40여 년 동안 조선사 연구에 헌신한 역사학자로, 경희대 교수와 실학박물관 석좌교수를 역임하며 조선시대 사상사 연구와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의과대학 교수 27명, <의학교육의 이해> 발간



김영설 교수를 비롯한 의과대학 교수 27명이 <의학교육의 이해>를 번역 출간했다.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에서 펴낸 이 책은 영국 의학교육연구협회가 발행한 의학교육 지침서다. 의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의사라는 목표를 위해 어떤 지식을 쌓아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의학교육의 질과 전문성 제고 방안을 집중 조명한 책이다. 김영설 교수는 "국내 의학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발전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번역에 임했다"고 말했다.

배종우 교수, 서울시의사회 의학상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배종우 교수가 제18회 서울특별시의사회 의학상(저술상)을 수상했다. 배종우 교수는 지난해 <한국 신생아 역학: 통계와 임상 자료>를 발간, 국내 최초로 신생아·영아·주산기 분야의 역학적 변천사와 미숙아·신생아 질환 최신 치료법을 소개했다. 배종우 교수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에 인공 폐 표면 활성제 치료법을 도입, 미숙아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 2011년 대한신생아학회장에 선출돼 관련 학문 발전에 이끄고 있다.

이동엽·홍두리 학생,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 대상



국제학과 이동엽·홍두리(10학번, 왼쪽부터) 학생이 7월 3일부터 4일간 육군3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9회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의 대상을 차지했다. 전국대학생모의유엔회의는 학생 대표들이 추첨을 통해 결

정된 국가의 유엔대사 역할을 맡아 안보·인권·군축·개발 등 의제를 놓고 토론과 협상을 진행하고, 연설문과 결의안을 작성·발표해 외교 역량을 겨루는 대회다. 올해는 전국 60개 대학에서 473명의 학생 대표와 60명의 지도교수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김민이 학생, 동해 표기 위키백과 오류 수정



지리학과 김민이 학생(11학번)이 다국적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백과디아의 동해 관련 오류를 발견해 이를 바로잡게 했다. 김민이 학생은 지난 6월 위키백과디아에 실린 한·일 간 동해 표기 논쟁에 관한 글에서 '국제수로기구(IHO)는 2012년 동해 표기 사용을 거부하고 일본해를 이 바다의 유일한 이름으로 정했다'라는 내용을 발견했다. 그러나 2012년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 총회는 동해와 일본해의 표기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017년 총회로 논의를 미뤘다. 김민이 학생은 즉시 위키백과디아에 수정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다. 그후 위키백과디아는 '국제수로기구가 동해 표기 사용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표기 논의가 미뤄진 사실을 추가했다.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특강

지난 6월 25일 '21세기 미래대학을 말한다' 특강이 서울캠퍼스 오비스홀 111호에서 열렸다. 프린스턴대학교 고등연구소(Institute for Advanced Study, IAS) 마이클 게렛 부소장이 '고등연구소 운영 현황과 기금 모금'을 주제로 강연했다.

마이클 게렛 부소장은 이날 26일 초청 간담회에 참석, 기금 모금 사례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끈 경영노하우를 들려줬다. 그는 "기금 모금이 연구기관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서 "연구기관은 비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그에 공감하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관의 비전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 게렛 부소장은 온라인 웹사이트와 정기간행물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프린스턴 고등연구소는 모든 강연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연구 결과와 사회적 이슈를 담은 정기간행물을 제작·배포한다. 게렛 부소장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연구소의 비전과 가치, 기금 운용 성과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학과, '교육인증' 최고 등급

건축학도가 한국건축학교육인증 최고 등급인 '5년 인증'을 획득했다. 건축학교육인증은 국제건축가연맹(UiA)이 요구하는 건축학 교육의 국제적 상호인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증 대학 졸업생에게는 건축사 예비 시험 면제와 함께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인 실무 경력 5년이 3년으로 단축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 심사는 연례보고서, 5년 단위의 자체평가 보고서,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학생들의 건축사 자격 취득률과 취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픈 캠퍼스' 전공체험교실 개최

경희의 '오픈 캠퍼스' 전공체험교실과 수시모집 지도를 위한 설명회가 7월 26~27일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됐다. 전공 선택과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고등학생과 교사가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6일 열린 전공체험교실은 대학 전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진로·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행사에 앞서 환영식과 경희의 미래 및 입학설명회, 진로전문가가 들려주는 전공 선택, 선택이 들려주는 나의 전공 선택 등의 프로그램이 평화의 전당에서 진행됐다. 전국 고교생, 학부모, 교사 3,000여 명이 참여했다.

27일에는 진학담당교사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시모집 지도를 위한 설명회가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2014학년도 수시모집 특징과 지원전략, 수능 A·B형 선택을 위한 모의고사 분석, 대학별 지원 유형에 대한 분석과 지원전략 등이 발표됐다.



캠퍼스 무선랜(KHU Wi-Fi) 구축

경희가 캠퍼스 무선랜(KHU Wi-Fi)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통합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의 일환이다.

정보지원처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서울캠퍼스와 국제캠퍼스 내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 휴게 공간과 정류장 등 일부 외부 공간에 케이블을 포설하고 무선공유기(Access Point, AP)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강의 구성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단말장치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무선 인터넷에 연결, 강의와 교육 관련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지원처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무선랜 성능을 개선시켜나갈 계획이다.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1일 서울과 국제캠퍼스에서 거행됐다. 이번엔 학위를 취득한 학생은 박사 144명, 석사 669명, 학사 1,661명이다. 계열별 최우수 학위논문상의 영예는 송민경(조리외식경영학과 10학번) 조리외식경영학박사, 민경현(나노의약생명과학과 08학번) 약학박사, 박소연(의학과 10학번) 의학박사, 신은경(미술학과 11학번) 미술학석사, 최광혁(정보전자신소재공학과 09학번) 의학박사 등 5명에게 돌아갔다. 우수 학위논문상은 18명의 졸업생이 수상했다.

국제캠퍼스 연구·실험지원센터,

'연구장비 엔지니어 전문기관' 선정
국제캠퍼스 연구·실험지원센터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 전문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 경희는 향후 10년간 2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연구장비 엔지니어'는 장비를 운영해 데이터를 산출하고 해석,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미래부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연구장비 전문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유네스코키즈' 프로그램 추진

경희대학교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가 8월 7일부터 6일간 '유네스코 키즈(UNESCO Kids)'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유네스코 키즈'는 초등학생들에게 국제기구 탐방과 세계 문화유산 답사 기회를 제공,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처음 실시된다.

경희대학교는 201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ACE) 지원사업 중 하나로 Global Youth Leadership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경희대 학생 12명,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88명을 멘토와 멘티로 선발했다. 프로그램은 여름캠프, 자기주도학습, 겨울캠프로 구성된다. 선발 학생에게는 캠프 참가비 전액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인턴십 기회가 제공된다.

경희대학교병원,

임상연구 국제인증 획득

경희대학교병원이 9월 17일 임상연구 분야의 국제인증기관 AAHRPP (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피험자 보호 프로그램 인증협회) 인증을 획득했다. AAHRPP는 2001년 미국 정부의 임상연구 안전·윤리 관련 7개 부처가 후원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연구기관의 윤리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시킬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최영규 임상의학연구소장은 "AAHRPP 인증은 경희대학교병원이 세계적 수준의 높은 기준에 따라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입증한 것"이라며 "향후 다국가 임상실험 유치 증가와 연구중심 병원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 강연

경희대학교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이 지난 7월 18일 서울캠퍼스 평화의 전당에서 '유엔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 기념 강연'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류 평화와 공존에 헌신한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고 더 나은 인간과 세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넬슨 만델라는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에 저항하며 흑인인권운동을 이끌었다. 27년



간 감옥에서 복역한 그는 1993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1994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첫 흑인 대통령에 당선된 후 인종차별정책을 종식시켰다. 2009년 유엔은 그의 생일인 7월 18일을 '세계 넬슨 만델라의 날'로 제정했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에서 "끊임없는 용기와 도전, 연결과 협력만이 차별을 넘어선 배려와 존중, 정의가 살아 숨쉬는 자유의 길을 열어준다"면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온 경희의 길은 바로 그 미래를 찾아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 강연에는 힐튼 앤서니 데니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를 비롯, 21개국 주한 대사관·유엔난민기구·비정부기구(NGO)·경희 구성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연자로 김성재 전 문화부장관이 초청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암 예방 전자책 발행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 지난 9월 4일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암 예방 전자책(eBook) <암 예방을 위한 명의 지침서>를 발행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차지하는 암 예방을 돕기

위해 강동경희대병원 암 전문의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책에는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전립선암, 유방암, 갑상선암, 췌장암 등 9개 암의 원인, 증상, 치료, 예방 관련 정보가 담겨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사용, 리디복스·교보문고 등 10개 온라인 서점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의 상용화로 전자책의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암 예방을 위한 건강 정보를 전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희대 시그마(SIGMA)팀, 큐브위성경연대회 최종 선발

경희대학교 시그마(SIGMA)팀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최한 2013큐브위성경연대회 최종 개발팀에 선발됐다. 이 대회는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10cm, 무게 1kg 내외의 초소형 위성(CubeSat) 개발 비용과 발사 기회를 제공하는 국책 연구·개발 프로그램이다.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팀을 대상으로 실시된 두 차례 경연을 거쳐 경희대를 포함, 3개팀이 최종 선정됐다. 3개팀에는 위성 제작 및 실험 비용이 지원된다. 위성 개발에 성공하면 인증서 수여와 발사 기회가 제공된다.

경희대 시그마팀은 우주방사선 측정 장치와 고정밀 자력계 탑재·운용을 통해 지구 근접 우주공간에서의 자기

장 분포와 변화, 방사선 선량에 대한 측정 임무를 수행, 우주방사선 피폭에 의한 생물학적 영향 연구에 활용될 자료를 획득할 예정이다.

경희·스탠포드 학술행정 세미나

경희·스탠포드대 학술행정 세미나가 7월 17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미래대학의 창의적 학문 발달과 행정 혁신: 스탠포드대학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에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신기욱 소장이 발표자로 초청됐다.

"스탠포드대학교의 학술적 탁월성은 좋은 교수를 채용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밝힌 신 교수는 "스탠포드대는 외부 전문가 평가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테뉴어(Tenure, 종신제 직권)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교수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노력한다"

고 말했다. 그는 "스탠포드대는 외부와의 학술 교류를 교수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교수의 외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스포츠과학학술대회 개최

2013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가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제캠퍼스에서 열렸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는 국제스포츠과학 학술대회는 전 세계 스포츠과학 전문가들이 모여 체육과학의 미래비전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는 한국·미국·일본·뉴질랜드 등 세계 10개국의 교수, 스포츠 지도자, 선수 2,000여 명이 참가했다. '과학적 근거 기반의 스포츠와 운동과학을 추구하며(In Pursuit of Evidence-Based Sports and Exercise Science)'를 주제로 발표와 발제, 토론이 이뤄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Magnolia Story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대외협력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소액모금 캠페인으로, 경희사랑의 마음을 모아 서로 돕고 보살피는 아름다운 나눔의 이야기다.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교내에 확산시키고, 대학의 사회공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은 크게 장학기금과 사회봉사기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장학기금은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 기금으로, 사회봉사기금은 경희사회봉사기금과 경희의료봉사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매그놀리아 스토리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은 자신이 졸업한 학과나 대학을 지정해 배움에 대한 열정과 비전은 있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후배를 격려하고 선후배 간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장학금을 지원받은 후배는 '훗날 선배가 되었을 때 미래의 후배를 돕겠다'는 마음의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문화의 전통이 이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회봉사기금은 환경보호, 기아문제 해결, 난민 지원 등 지구적 사회공헌

을 실천하는 경희의 각종 해외봉사, 경희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난치병 해소와 무의촌 진료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의료봉사 지원 등에 사용된다.

참여 인원과 방법 및 기금 조성액 현황(2013년 9월 30일 현재)

2010년 10월 말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시작된 매그놀리아 스토리는 교직원과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발족 2주 만에 1억 8,000여 만 원을 돌파했고, 2013년 9월 현재 24억 1,000여 만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조성 금액 : 2,410,159,206원

- 참여 인원 : 2,393명

- 참여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http://magnolia.khu.ac.kr>)에서 쉽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대외협력처에 직접 방문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 문의 : 경희대학교 대외협력처(02-963-4874~6)



경희대학교 뉴스레터 제 16호

경희 구성원의 숙원이었던 캠퍼스 종합개발사업 'Space 21'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 8월 서울캠퍼스가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을 서울시에 접수했으며, 국제캠퍼스도 구성원 의견을 최종 수렴 중입니다. 이번 호 뉴스레터는 2016년 1학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Space 21' 현황을 특 집 형식으로 꾸몄습니다. 'Space 21'은 경희가 21세기 세계적 명문으로 도약 발전하기 위해 최적의 교육-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대사업입니다. 지난 6년간 '학술 경희'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경희는 올해 다양한 학술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영어학부와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등 인문-사회계열 3개 학과가 국내 '최상위 학과'로 평가됐으며, BK 21 플러스 사업에 21개 사업단(팀)이 선정됐습니다.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6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한편 경희의 탁월한 연구 논문이 세계적 학술지에 연이어 게재되고 있습니다. 경희가 '양적 성장'의 단계를 넘어 '질적 도약'의 단계로 올라섰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성과를 소개합니다.

제16호 2013년 11월 18일 발행 발행인 조인원 편집 발행 출판문화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전화 02-961-0106~8 이메일 khds3080@khu.ac.kr 홈페이지 www.khu.ac.kr